

난민신청자 PC방서 잔혹 살인

**20대 케냐인 화장실로 업주 유인 살해 뒤 손님 상대 강탈도
전날 경찰서·출입국사무소 찾아가 “고향 가고 싶다” 요구
난민 신분 강제되지 못하고 조치없이 돌려보내...대책 마련 시급**

난민 신청자인 20대 케냐 국적의 외국인인 광주에서 PC방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 용의자는 PC방 주인 살해 이후 1시간 동안 머물며 PC방을 찾은 손님에게도 강도행각을 벌였다.

특히 이 외국인인은 전날 “고국에 보내달라”며 경찰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지만, 두 곳 모두 특별한 조치없이 내보내 외국인 관리에 하점을 드러냈다.

지역사회에서는 해마다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와 함께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잔혹한 범행 왜? = 광주북부경찰은 9일 PC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케냐 국적의 M(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이날 오전 9시38분쯤에서 10시10분쯤 사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PC방에서 젓가락 등을 사용해 업주 김모(38)씨를 살해한 혐의다. M씨는 범행 이후 김씨의 시신을 사람들의 출입이 적은 화장실 옆 비상구 계단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M씨의 살해 수법은 잔혹했다. 경찰은 M씨가 이날 오전 9시9분쯤 PC방을 찾았다가 약 30여 분 뒤 김씨를 화장실로 유인해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10시10분쯤 젓가락 등을 갖고 다시 화장실을 찾았다. 숨진 김씨의 입에서는 다수의 손가락과 젓가락이 발견됐다.

범행 이후 한참 동안 PC방에 머물던 M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PC방에 앉아 있던 손님 박모(22)씨의 점퍼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화장실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M씨는 현재 목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때문에 살해동기와 함께 ‘왜 잔혹한 수법을 썼는지’ ‘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왜 피해자의 서류 가방을 뒤졌는지’ ‘왜 범행 후 범행장소에 머물렀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 대기실에서 교성을 지르던 M씨는 한때 “나는 똑똑하다.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날 출입국사무소 방문 = M씨는 범행 전날인 8일 오후 3시24분쯤 광주북부경찰서를 찾았다. 앞서 북구 한 부동산중개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다 경찰과 동행해 출석했다.

M씨는 경찰서에서 외사계 직원들에게 “나는 불법 체류자다. 고향에 갈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이날 오후 4시쯤 광주출

입국관리사무소에 M씨를 인계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M씨가 불법체류자가 아닌 ‘난민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과 함께 다시 돌려보냈다.

M씨는 지난 2015년 7월18일쯤 단기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에 참석했고, 8월25일쯤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증하는 난민 신청 대책마련 절실 =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난민 신청 신청자는 모두 57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2896명)보다는 2배 가까이, 2011년(1011명)보다는 5배 넘게 급증했다.

광주지법에서는 현재 47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6건, 지난 2014년에는 1건이 기각됐다.

난민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는 불법체류 신분에서 법무부에 난민신청 신청을 하면 최장 2년의 심사 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면 그 이상을 머물 수 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 신청과 소송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고려인마을 공동대표 이천영 목사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뒤부터는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혀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조차도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서창 주민들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반대”

“마을 도로 나눠질 판...서창구간 포함 말라” 주장

“서창이 봉이나. 탄약고·경전선·군비행장으로 고동받고 있는데 마을 위 고속도로라니 당장 철회하라.”

광주 서창지역 고속도로 반대 대책위원회는 9일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서구 서창동 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 소속 주민 300여명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 서창구간을 포함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애초 2002년 고속도로 건설 계획 당시 나주~완도 구간이었으나 지난 2006년 광주시의 요청으로 서구 벽진

동(서창동)을 시점으로 강진까지 구간이 변경됐다”면서 “광주시와 도로공사가 주민 의견을 왜곡하고 수립한 계획대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서창지역은 또다시 개발에서 소외되고 주민들 재산 피해 또한 막심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어 “서창지역은 그간 상무대와 탄약고, 군사비행장 등 군사시설로 7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고 수년 전 경전선이 놓이면서 지역이 남북으로 쪼개졌는데 이제는 고속도로가 동서로 마을을 나누게 될 판”이라며 “주민 피해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나주 혁신도

로로 가는 길을 5분 단축하려고 수천억 원을 들여 새 길을 뚫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강진고속도로 계획 수립은 당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서 추진한 것으로,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게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면서 “주민들의 입장은 알지만 고속도로가 풀리면 광주에서 혁신도시 가는 길이가 20분 가량 단축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광주~강진고속도로는 지난 2002~2004년 타당성 조사, 2011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실시절차가 진행 중이다. 총 길이는 51.75km, 올 연말 착공해서 2024년 완공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광주시 서창동 주민 300여명은 9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서창)~강진고속도로 건설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애초 나주~완도 구간으로 건설 예정이던 고속도로가 광주시의 요청으로 구간이 변경돼 서창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됐다고 광주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외국인 7만명...범죄도 크게 늘어

광주 지난해 467명 형사입건...4년새 2.3배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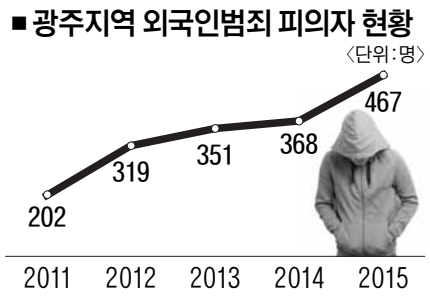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7만명에 달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형사입건된 외국인은 총 467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사범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1)·성폭력(16)·절도(34)·폭력(101명) 등 강력범죄도 상당수였다.

외국인 범죄는 2011년 202명에서 2012년 319명, 2013년 351명, 2014년 368명, 지난해 467명으로 4년새 2.3배 급증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의한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입국관리소의 통계에 따르면 1월말 기준으로 광주·전남에는 6만436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는 등록 외국인이 1만8371명, 외국국적의 동포 거



소신고자 2586명, 국민의 배우자 체류 3309명 등 총 2만4266명에 달한다. 전남에는 등록외국인이 3만399명, 동포 거소신고자 2980명, 배우자 6722명 등 4만101명이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까지 합하면 7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살인·강도는 물론 도박개장 등 범죄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9일 케냐 국적 M(28)씨

를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도 이날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로 김보다이인 16명을 강제추방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광주시 광산구 한 빌라에 칸보다이 전봉도박인 ‘아바울’ 도박장을 개설, 판돈 1000여만 원을 걸고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8일 영암경찰은 훔친 자전거를 고향의 가족에게 넘겨 판매하게 한 혐의(특수절도)로 몽골인 A(3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4월 취업비자로 입국한 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11시쯤 영암군 삼호읍 한 아파트에 세워진 B(35)씨의 자전거(70만 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 2월2일부터 최근까지 영암과 목포 일대를 다니며 고가의 자전거 18대(720만원 상당)를 절취해 고향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빙판길 고속도로 차량 5대 사고...출동 구급차도 충돌

밤사이 내린 눈·비에 얼어붙은 고속도로의 한 지점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미끄러져 사고가 나고, 출동한 구급차도 미끄러졌다.

8일 오후 9시52분쯤 강진군 성전면 인근 남해고속도로 강진-목포 방향에서 차량 3대가 각각 빙판길에 미끄러졌다. 이후 뒤따르던 차량 두 대가 추돌하면서 모두 5대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

나 뒤집히는 등 고속도로의 한 지점에서 동시에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세 여아와 임신부 등 3명이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5대 차량사고 부상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차도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우체국 담벼락 붕괴 날벼락...출근 중 40대 여직원 숨져

순천의 한 우체국에서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져 출근 중이던 40대 여직원이 숨졌다.

9일 오전 8시38분쯤 순천시 모 우체국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2m 높이의 담벼락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주차를 마치고 우체국에 출근 중이던 직원 A(여·44)씨가 무너져내린 벽돌 더미에 깔렸다. A씨

는 뒤따라 출근하던 다른 직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두겹의 적벽돌로 쌓은 담이 얼마 전부터 기울어 다음 주에 보수공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경 및 안전 관리 문제점이나 지반 약화 등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취업 사흘만에 배달차 흠쳐 도주

○~치킨가게 취업 사흘 만에 치킨 배달용 차량을 흠쳐 타고 나가 종적을 감춘 30대 남성이 경찰에 들림.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7)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1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박모(43)씨의 가게에서 주인 박씨와 다른 종업원이 모두 퇴근하자 배달용 승용차 마티즈를 몰고 달아난 혐의.

○~김씨는 훔친 차량의 연료가 떨어지자 화순의 한 시골마을에 차량을 버린 뒤 2개월째 집도 들어가지 않고 행적을 감췄다가 탐문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호기심 삼아 주인 차량을 몰고 가게를 나섰다가 기름이 떨어지자 버려둔 것이지 처음부터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황실수술.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알프스모텔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경매로 취득,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용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투자 가치! 좋습니다

리모델링후 연 3억 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